

2014학년도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도덕 · 윤리

수험 번호 : () 성 명 : ()

1차 시험	2 교시 전공A	20문항 5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입형 [1~15]

1. (가)는 어느 도덕 교육 이론가의 주장이고, (나)는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요소의 일부이다. (나)의 ㉠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가)의 ㉡과 관련하여 1가지만 제시하십시오. [2점]

(가)

- 학교와 교실이 배려의 공동체로 느껴질 때, 아동들은 좋은 인격을 계발할 수 있다.
- 아동 발달 프로젝트(Child Development Project)를 통해 학생들이 좋은 인격에 필요한 기능과 이해를 학습하도록 돕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우선적 과제를 제시한다.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우선적 과제
배려하는 관계를 촉진하는 것
인간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
㉡
도덕적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

(나)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추구하며, 이웃을 배려하는 실천 방법을 익힌다. 이를 위해 이웃을 배려하고 봉사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호 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열거한다.

- ① 다양한 이웃들과 나의 관계
- ② 배려와 ㉠ 봉사활동
- ③ 상호 협동 정신의 실천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 다음 대화의 ()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점]

모형	수업 모형 A	수업 모형 B
전개 과정	가치 확인 및 명료화 → 명칭 일반화	자유롭게 선택하기 → 대안들로부터 선택하기
	→ 가치갈등 분석	→ 반성하여 선택하기
	→ 제한된 결정 내리기	→ 소중히 여기기 → 공언하기 → 선택에 따라 행동하기 → 반복하여 행동하기

뉴스에 나오는 장애인 차별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돕는 도덕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도덕 수업 시간에 칠판의 두 모형 중 어떤 모형을 쓰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수업 모형 A를 쓰면 좋겠네요. A의 목적은 B와는 대조적으로 주로 () 측면의 가치와 관련된 판단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으니까요.

3. 다음은 어느 서양 도덕 교육 이론가의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을 쓰시오. [2점]

- 환경이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발달은 아래 그림처럼 개인, 환경, 행동 모두가 각각 서로 양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 도덕적 자아의 발달 과정에서 개개인은 행위에 대한 지침이나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능하는 옹고 그림의 기준을 채택한다. 이러한 ()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이 일어나는 조건을 검토하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의거하여 그 행동과 조건을 평가하며, 환경을 파악하고 결과를 고려하여 행동한다. ... (중략) ... 개인의 ()이/가 선택적으로 활성화되고 해로운 행위로부터 이탈되는 메카니즘의 유형에는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언어의 사용, 유리한 비교, 책임 소재의 이동, 책임감의 분산, 결과의 무시와 왜곡, 비인간화, 비난의 전가 등이 있다.

4. 다음은 태학(太學)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글이다. () 안에 들어갈 개념을 쓰시오. [2점]

이는 공자가 남긴 글이니 처음 배우는 이가 덕(德)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배우는 자가 반드시 이에 의지하여 배운다면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 (중략) ... 이른바 그 '뜻을 참되게 한다[誠意]' 함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악취를 싫어하듯,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듯 하는 것인데, 이를 일러 '스스로 만족한다[自謙]'고 한다. 따라서 군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소인은 한가하여 나쁜 일을 행함에 못하는 것이 없으면서 군자를 만나면 나쁜 일을 은폐하고 선한 척하지만, 남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5. 다음 글의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부처 입적 후 형성된 부파 불교는 부처의 교법[dharma]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해석과 설명으로 오히려 부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 불교의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나가르주나(Nāgārjuna, 龍樹)이다. 그는 유(有)와 무(無)에 집착하는 두 가지 견해를 비판하고, 공(空, śūnyatā)을 파악하라고 가르쳤다. 그에 따르면 공의 세계는 생겨[生]나지도 소멸[滅]하지도 않으며, 불연속[斷]도 아니고 연속[常]도 아니며, 동일[一]한 것도 다른[異] 것도 아니며, 오는[來] 것도 아니고 가는[去] 것도 아니다. 그의 이런 주장을 () (이)라 한다.

6. 다음은 동양 윤리 사상가 잠, 을의 대화이다. () 안에 들어갈 개념을 쓰시오. [2점]

잠: 내 집 앞에 큰 가죽나무가 한 그루 있네. 그 나무는 줄기가 뒤틀리고 옹이가 가득해서 먹줄을 칠 수 없네. 작은 가지들은 꼬불꼬불해서 자를 댈 수도 없지.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이 돌아보지도 않네. 지금 자네 말이 그 나무와 같으니,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걸세.

을: 자네는 어째서 그 큰 나무를 아무것도 없는 고을의 광막한 들판에 심어 놓고, 그 옆에서 하는 일 없이 배회하거나 그 아래에서 한가롭게 소요하지 않는가? 도끼에 요절당하지 않고, 달리 해치는 자도 없을 걸세. 산의 나무는 제 탓으로 손상을 입고, 호롱불은 자신을 태우지. 계수나무는 식용할 수 있어서 별목되고, 옷나무는 용도가 많아서 베어진다네. 그러나 '신인은 재목이 되지 않는다[神人不材]'라고 하지. 다만 사람들 가운데 ()의 이치를 아는 자가 드물 뿐이네.

7. 다음은 한국의 어느 불교 사상가가 다른 불교 사상가를 평론한 글이다. 밑줄 친 내용이 누구의 무슨 사상을 가리키는지 쓰시오. [2점]

법상종의 1백 권의 담론은 개념과 현상[名相]에 구애되고, 천태종의 90권의 언설도 단지 이치와 관법[理觀]을 숭상한다. 비록 이 둘이 신뢰할 만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방편에 두루 통하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직 우리 해동의 보살만이 성(性)과 상(相)을 융화해 밝히고 과거와 지금을 은밀히 통괄해 백가(百家)의 논쟁의 단서를 화해시켜서 한 시대의 지극히 공정한 논의를 얻었다. 그리하여 이름이 중국과 인도에 떨치고 자비로운 교화가 저승과 이승에 함께 퍼졌으니, 그 행적을 찬양하려 해도 참으로 헤아려 논하기 어렵다.

8. (가)는 어느 서양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밑줄 친 내용 중 1가지에 근거하여 이 사상가가 <보기>의 갑에게 조언할 말을 쓰시오. [2점]

(가) 세계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 우주의 모든 공동체가 신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신의 마음은 단지 시간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개념이므로 이로부터 생겨난 법 또한 영원하다. 지적 피조물인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영원한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인간은 영원한 법을 반영하는 자연적 성향을 갖고 있다.

—<보 기>—

갑: “나는 모든 지식을 거부하고 무지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야.”

9. 다음은 어느 서양 현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들어갈 개념을 쓰시오. [2점]

사유는 사물에 내재하는 정적이고 영원한 성질과 같은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다. 가치는 좋아함(liking), 높이 평가함(prizing) 등과 연관되며, 고정불변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운동 방향이 ()을/를 지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이라고 말한다.

10. 다음은 어느 서양 근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 수동적인 정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명석 판명한 관념을 형성하는 순간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를 명석 판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를 더 많이 인식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을 사랑한다.
- 지복(至福)은 신에 대한 사랑에서 찾을 수 있으며, 덕의 결과물이 아니라 덕 자체이다. 우리는 쾌락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복을 누리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은 자신과 신체를 () 아래에서 파악함으로써 신의 인식을 획득해야 한다.

11. 다음은 현대 민주주의 이론을 비교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점]

	(A) 민주주의	(B) 민주주의
선호에 대한 이해	개인적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시민을 단순히 정치적 선호를 보유한 존재로 봄.	개인적 선호를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시민을 정치적 선호를 바꿀 수 있는 존재로 봄.
정치적 선택 과정의 핵심 과제	시민들의 선호의 결집 내지 수렴	시민들의 선호의 형성 내지 변환
정치적 선택의 정당성 확보 근거	()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시민들 사이의 심의나 토론

12. 다음 A~D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먼저 제시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2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이 특수관계 속에서 공존공영하며 협력을 통해 분단 상황을 평화적, 통일 지향적으로 관리해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남북관계 개선에 최대 역점을 두고 대북정책 추진 ○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불원, 화해협력 추구의 3가지 원칙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제시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교류 중심의 포용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는 통합적 접근을 토대로 정책 목표 설정 ○ 신뢰 형성을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추구, 통일인프라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을 추진 과제로 제시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적 남북관계 정립 및 실질적 관계 발전 추진의 관점에서 남북한 주민의 행복한 삶과 통일 기반 마련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 ○ 실용성과 생산성에 기초한 정책 추진, 원칙에는 철저히 유연한 접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 추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추진 원칙으로 제시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를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 추진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 원칙으로 제시

13. 다음을 주장한 정치 사상가가 밑줄 친 개념을 중요시한 이유를 쓰시오. [2점]

이 계몽된 시대에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화되지 않은 감정의 소유자라고 대담하게 고백한다. 우리의 옛 편견을 모두 버리기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더 오래 지속된 편견일수록, 더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편견일수록, 우리는 그러한 편견을 소중히 여긴다. ... (중략) ... 국가는 일시적이며 결국은 사라져 버릴 속성을 지닌 저차원의 동물적 생존에 도움이 되는 물자에 관련된 동반자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학문·예술·덕목 등의 완성과 관련된 동반자 관계이다. 그러한 동반자 관계가 목표로 삼는 것은 여러 세대를 거치더라도 성취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사이의 동반자 관계이다.

14. (가), (나)는 한 서양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밑줄 친 ㉠ 중에서 (나)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2점]

(가)	<p>군주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능력과 행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행운을 잘 이용하는 재주에 의해서이다. 여기서 군주가 되는 길은 인민의 지지를 얻는 경우와 귀족의 지지를 얻는 경우가 있다. 인민은 귀족의 명령을 받거나 억압당하는 일을 피하려 하며, 귀족은 인민에게 권력을 행사하여 억압하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되는 당파는 늘 있어 왔다. 국가에 존재하는 이 2가지 다른 기질로부터 ㉠ 3가지 정치체제 중 어느 하나의 체제가 생겨나게 된다.</p>
(나)	<p>이것은 귀족과 인민 가운데 어느 층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하나가 인민이 주도권을 잡고 귀족들의 정치 참여를 용인하는 ‘저변이 넓은 정치체제’인데, 이것이 가장 좋은 정치체제이다.</p>

15. (가)는 어느 서양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이다. 이 사상가가 제시한 (나)의 () 안에 들어갈 2개의 요소를 쓰시오. [2점]

(가)	<p>덕이 없는 명예, 지혜가 없는 이성, 쾌락밖에 없는 행복 등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생겨난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일에 나는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의 경향을 모두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 사회의 정신 및 불평등임을 밝혀내는 일이다.</p>												
(나)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불평등의 원인</th> <th>불평등의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첫째 단계</td> <td>()</td> <td>부자와 빈자의 상태 용인</td> </tr> <tr> <td>둘째 단계</td> <td>위정자의 직분</td> <td>강자와 약자의 상태 용인</td> </tr> <tr> <td>셋째 단계</td> <td>전제적 권력</td> <td>주인과 노예의 상태 용인</td> </tr> </tbody> </table>	단계	불평등의 원인	불평등의 결과	첫째 단계	()	부자와 빈자의 상태 용인	둘째 단계	위정자의 직분	강자와 약자의 상태 용인	셋째 단계	전제적 권력	주인과 노예의 상태 용인
단계	불평등의 원인	불평등의 결과											
첫째 단계	()	부자와 빈자의 상태 용인											
둘째 단계	위정자의 직분	강자와 약자의 상태 용인											
셋째 단계	전제적 권력	주인과 노예의 상태 용인											

서술형 【1~5】

1. 도덕 발달 이론가 갑의 입장에 의하면 (가)에서 A의 두 행동이 각각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4점]

갑	도덕적 추론은 인지 능력의 발달에 기초하여 도덕적 규범을 생성해 내면서 이루어지고, 인습적 추론은 사회 체제의 성격을 보다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7단계의 발달 순서를 거쳐 이루어진다. 반면 개인적 영역의 추론에서는 도덕적 평가나 인습적 규정과 무관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가)	중학생 A는 요즘 들어 수업 시간마다 껌을 씹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2. 다음은 두 중국 유학자의 사상을 기초로 재구성한 가상 대화이다. 이 가상 대화의 내용을 전제로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을이 말하는 오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4점]

갑: 선생께서는 선지후행(先知後行)과 지행병진(知行並進)을 주장 하셨는데, 후대 사람들은 제가 주장한 지행합일(知行合一)과 대비하여 선생은 선지후행을, 저는 지행합일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왜 발생했을까요?
 을: 자네가 말한 대로 나는 객관적 궁리(窮理)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언급할 때는 주로 선지후행을 강조하고, ()을/를 언급할 때는 주로 지행병진을 강조했는데, 후대인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런 오해가 생긴 듯하네.

3. 다음은 ‘한국의 고유 사상과 그 현대적 의의’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교사가 제시한 자료와 학생의 해석이다. <학생 해석>에서 잘못된 논점 2가지를 바로잡아 제시하고, 그 이유를 함께 서술하시오. [4점]

〈교사 자료〉

환인(桓因)의 아들로 환웅(桓雄)이 있었는데, 하늘 아래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三危) 태백(太白)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에 천부인 셋을 주며 내려가서 다스리도록 했다.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神檀樹) 아래 내려와 신시(神市)라고 하였으니, 그를 일컬어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중략)…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음을 늘 신단수 아래서 잉태하기를 빌었다. 환웅이 이에 가화(假化)하여 혼인을 하고 웅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이분이 중국의 요 임금 즉위 50년 경인(庚寅)에 평양성을 도읍으로 정하여 처음 ‘조선’이라고 칭하였다.

〈학생 해석〉

천신인 환인과 환웅이 세계의 배후에서 궁극적으로 인간과 만물을 주재한다는 세계관이 드러나며, 단군이 천손인 것은 그가 신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릴 권능을 부여받은 세계의 지배자임을 말한다.

4. 다음은 어느 조선 유학자의 글이다. ㉠에 대한 그의 주장 중 중국 유학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설명하고, 그 특징의 윤리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4점]

- 성인(聖人)이 되는 학문에는 큰 단서가 있고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에는 지극한 요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圖)로 만들고 여기에 설명을 붙임으로써 사람들에게 도(道)에 들어가는 문과 덕(德)을 쌓는 기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은 또한 후현(後賢)의 부득이한 일입니다. … (중략) … 무극이면서 ㉠ 태극이다.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그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다시 고요해진다. 고요해지면 음을 낳고, 그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다시 움직인다. 이렇게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해짐이 서로의 뿌리가 되어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서 양의(兩儀)가 형성된다.
- 그 진실(眞實)·무망(無妄)으로 말한다면 천하에서 리(理)보다 실(實)한 것이 없고, 그 무성(無聲)·무취(無臭)한 것으로 말하면 천하에서 리보다 허(虛)한 것이 없으니, 이것은 다만 ‘무극이태극’이라는 한 구절에서 드러난다.

5. 다음은 어느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 사상가가 밑줄 친 ㉠과 ㉡에 해당하는 탁월성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주장했는지 서술하시오. [4점]

행복은 완전한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어떤 활동이다. 영혼은 이성이 없는 부분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나뉜다. 이성이 없는 부분은 다시 식물적인 것과 ㉠ 육구적인 것으로 나뉜다. 이 중 후자는 이성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설복될 수 있는 한에서는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또한 다시 둘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아버지의 말을 듣듯 그렇게 이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 일차적인 의미에서 이성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탁월성 또한 이러한 차이에 따라 나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